

## 640년대 후반 高句麗·唐전쟁에 대한 검토

羅棟煜\*

1. 머리말
2. 唐의 對高句麗 군사전략
3. 전쟁의 전개 양상
4. 맺음말

### 1. 머리말

645년 가을 9월 唐太宗은 凍死者가 속출하고 자신이 직접 길을 메우는 악전고투 끝에 遼澤을 건너 班師할 수 있었다. 처음 요택을 건너며 돌아오는 다리는 필요 없다 공언했던 호기로운 자세와 비교하면 초라하고 웅색한 모습이였다. 전쟁의 실패를 경험한太宗은 새로운 군사작전을 통해 고구려를 굴복시키고자 했고, 647년부터 648년 사망하기 전까지 偏師를 보내고

구려 각지를 공격했다. 양국은 이 기간 전에는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 학계에서는 이 시기의 전쟁에 대해서 그리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아 왔다. 전쟁의 전체적인 국면을 설명하거나,<sup>1)</sup> 양국의 정치·외교적인 상황을 설명하고자 할 때 짧게 언급되는 수준이었다.<sup>2)</sup> 이에 본고에서는 647년부터 648년의 唐 군사전략과 그에 대한 고구려의 대응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지금까지 이른바 ‘장기소모전략’ 혹은 ‘지구·장기전략’으로 칭해지던 唐의 군사전략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다 적절한 용어를 탐색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군사전략 전환의 원인이었던 당시 전략환경에 대한 唐의 인식을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唐의 새로운 군사행동이 전개된 목적 및 방향성과 고구려의 대응을 고찰해 보려고 한다. 이로써 양국 군사력 운용 실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1) 李丙燾, 「高句麗 對 隋·唐抗爭과 濟·麗의 崩滅」, 『韓國史(古代篇)』(을유문화사), 1959;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高句麗 對隋·唐 戰爭史』,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91; 林起煥, 「高句麗와 隋·唐의 戰爭」, 『韓國史』4 古代社會에서 中世社會로 2, 한길사, 1994; 李昊榮, 「隋·唐과의 戰爭」, 『韓國史-三國의 政治와 社會 1-高句麗』5, 國史編纂委員會, 1996; 「高句麗의 敗亡原因論」, 『중재 장충식박사 화갑기념 논총-역사학편』, 1992;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三國의 軍事戰略』,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2002; 『韓國古代 軍事戰略』, 2005; 李成制, 「高句麗와 契丹의 關係-對 隋·唐·戰爭期 契丹의 動向과 그 意味」, 『北方史論叢』5, 2005; 金羨珉, 「隋 煬帝의 軍制改革과 高句麗遠征」, 『東方學志』119, 2003.
- 2) 林起煥, 「6·7世紀 高句麗 政治勢力的 動向」, 『韓國古代史研究』5, 1992; 朴漢濟, 「7世紀 隋唐兩朝의 韓半島 進出經緯에 대한 一考-隋·唐初 皇帝의 正統性確保問題와 關聯하여」, 『東洋史研究』43, 1994; 金瑛河, 「高句麗 內分の 國際的 背景-唐의 段階의 戰略變化와 關聯하여」, 『韓國史研究』110, 2000; 金子修一, 「高句麗와 隋의 關係」, 『高句麗研究』14, 2002; 尹明喆, 『高句麗 海洋史 研究』, 四季節, 2003.

\* 육군사관학교 강사

## 2. 唐의 對高句麗 군사전략

### (1) ‘長期消耗戰略’에 대한 검토

645년의 요동전역 시, 太宗은 한 번의 출병으로 전쟁을 마무리짓고자 하는 1회성 단기전략을 구사했다. 그러나 요동전역 이후, 고구려와 唐의 전쟁은 이전의 형태와 사뭇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전쟁 양상의 변화는 唐의 전략 수정에서 기인했다. 太宗은 요동전역의 패전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를 굴복시키려는 욕망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646년 말 또다시 전쟁을 결심했다. 고구려 침공을 위해 太宗은 새로운 전략을 신료들에게 요구했고,<sup>3)</sup> 신료들은 아래와 같이 上奏했다.

A-1. ① 貞觀二十一年(647) … 上將復伐高麗 朝議以爲 高麗依山爲城 攻之不可猝拔 ② 前大駕親征 國人不得耕種 所克之城 悉收其穀 繼以旱災 民大半乏食 ③ 今若數遣偏師 更疊擾其疆場 使彼疲於奔命 釋未入堡 數年之間 千里蕭條 ④ 則人心自離 鴨綠之北 可不戰而取矣 上從之.<sup>4)</sup>

A-2. 帝與長孫無忌計曰 高麗困 吾師之入 戶亡耗 田歲不收 蓋蘇文築城增障 下饑臥死溝壑 不勝敵矣 明年以三十萬衆 公爲大總管 一舉可滅也.<sup>5)</sup>

사료 A-1에 따르면 唐의 朝議는 고구려가 산을 의지하여 성을 쌓고 방어하므로 쉽게 함락시킬 수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고(A-1-①), 太宗 역시 이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기왕의 군사작전 형태로는 고구려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판단하에 새로운 군사작전을 계획했다. 唐은 645년의 戰役으로 고

3) 『資治通鑑』卷 第198 唐紀14 貞觀 20年 條.

4) 『資治通鑑』卷 第198 唐紀14 貞觀 21年 條.

5) 『新唐書』卷220 列傳 第145 東夷 高麗 貞觀 22年.

구려가 농사를 짓지 못하고 비축한 식량을 빼앗겼으며, 이후에도 가뭄이 계속되어 식량이 부족한 상황을 간파했다(A-1-②).

이에 唐은 소규모 부대를 교대로 빈번히 파견하여 공격함으로써 고구려의 식량수급 상황을 악화시키고(A-1-③), 민심을 이반시켜 승리를 쟁취하려는 군사전략을 구상했다(A-1-④). 이 같은 唐 군사전략의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대동소이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략의 명칭이나 실효성에 관한 여러 異見이 존재하고,<sup>6)</sup> 전략 목표에 대한 설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은 듯하다.

李丙燾는 특정한 용어나 개념을 정의내리지 않고 ‘소부대를 통해 고구려를 교란하여 피로하도록 한 뒤 대대적 원정’을 하려 했다는 唐의 방법과 의도만을 간략하게 서술하였다.<sup>7)</sup> 林起煥은 唐의 군사전략에 대하여 ‘遲久戰略’, 李昊榮은 ‘長期戰略’이라 칭하였으나, 전략개념과 목표에 대한 분석은 구체적이지 못해 李丙燾와 비슷한 수준에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전쟁의 경과 및 결과에 대해서 唐의 일방적 승리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으나 일정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보았다.<sup>8)</sup>

金瑛河는 池內宏의 의견<sup>9)</sup>을 준용하여 唐이 遼東공략의 일환으로 647년 이후 ‘長期消耗戰略’을 전개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지만,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소략하다.<sup>10)</sup>

6) 아래에서 논의된 견해 말고도 余昊奎는 太宗의 공격이 요하 일대의 입체적 군사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余昊奎, 『高句麗 後期の 軍事防禦 體系와 軍事戰略』, 『韓國軍史研究』 3, 1999, p. 61).

7)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 1976, p. 450.

8) 林起煥, 앞의 논문, 1994, p. 181; 李昊榮, 앞의 논문, 1996, p. 135.

9) 池內宏, 『高句麗討滅の役に於ける唐軍の行動』, 『滿鮮史研究』 上世2, 吉川弘文館, 東京, 1960, p. 272. 池內宏 역시 구체적인 분석 없이 ‘長期戰에 依하여’라는 표현으로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논하였다.

10) 金瑛河, 앞의 논문, 2000, pp. 39-41. 盧泰敦 역시 唐이 ‘장기 소모전’을 채택했다고 기술했으나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으며, 전략의 실효성 측면에서 고구려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평가하고 있다(盧泰敦, 『高句麗史研究』, 四季節, 1999, p. 256).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이하 연구소)의 연구는 보다 진전된 성과가 확인된다. 연구소는 唐의 전략목표를 '소규모 군으로 빈번히 공격하여 고구려가 전시체제로 임하는 것을 강요하고 국력을 소모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 수행방법은 '戰線形成, 據點占領 회피 및 波狀의 출동-타격-철수의 반복'으로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消耗戰'이라 칭하였다. 군사 행동의 성과로 식량부족사태가 야기된 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전쟁의 거시적인 국면에 있어 고구려의 우수한 산성방위체제와 남방전선 안정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전쟁지도가 이루어짐으로써 방어작전이 훌륭히 수행되었다고 평가했다.<sup>11)</sup>

이상의 연구들은 '遲久'와 '長期', 그리고 '消耗'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遲久戰略'과 '長期戰略'은 전쟁의 시간적 측면에 많은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물론 위의 용어들이 647년부터 648년까지 唐의 군사전략을 설명함에 있어 부합하는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隋 文帝의 공격이 있었던 598년부터 645년에 이르는 시기의 군사행동이 遼東지역에서 작전하기에 용이한 春·夏절기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행해진 것과는 달리, 이 시기 일련의 군사행동이 계절과 무관하게 2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일관된 목적과 방법으로 행해진 측면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용어들은 구성 어휘의 특성 때문에 일견 군사작전의 기간만 늘어나고 그 외의 특징에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비추어질 수 있다.

唐 군사전략의 새로운 특징은 사료 A-1-③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일회성 대규모 원정이 아닌 偏師를 자주 보내어 고구려의 식량부족을 야기하고 군대와 백성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었다. 즉 정신적·물질적 요소를 포함한 고구려의 전쟁지속능력을 소진시키려 했다. '消耗'라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消耗戰'이나, 이에 시간적 개념을 더한 '長期消耗戰略'이라는 용어가 보다 타당할 듯하다. 그러나 이 같은 용어도 消耗戰略과 消耗戰<sup>12)</sup>의 개념적 측면을 고려하면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11)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앞의 책, 2002, pp. 50-55.

소모전략은 서구의 전략가들에 의해 정립된 개념이다. 특히 19세기 독일의 군인이었던 클라우제비츠는 적을 굴복시키는 방법의 하나로서 '적의 힘의 소모'가 있음을 말하며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방안 몇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적 지역을 점령하되 점유하려는 의도 없이 극도로 황폐화시켜 적에게 손해를 입히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적을 피로하게 만드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피로란, 행동의 지속시간으로 인해 물리적인 힘과 의지가 점증적으로 소진되는 것을 의미한다.<sup>13)</sup> 唐이 전개한 군사행동에는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消耗'의 개념은 647년 이후 2년간 唐軍이 전투를 수행한 방식을<sup>14)</sup> 설명하기에는 유효하지만 군사전략 전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소모전략은 소모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기 때문이다. 소모전략의 정의는 "결정적인 대규모 전투를 회피하고 他邦에게 감내할 수 없을 만큼의 소모를 부여하여 내 의지에 굴복시키는 것"이다.<sup>15)</sup> 즉 소모는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한정된다. 또한 결정적인 대규모 전투 없이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소모전략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A-1에서 臣僚들은 고구려의 의지를 삭감하여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전형적인 소모전략을 주장했다. 그런데 사료 A-2를 보면 太宗은 '30만 군사를 일으켜 一擧에 滅하겠다'라고 하여 결정적 전투를 상정하고, 이를 통해 고구려를 굴복시키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즉 太宗은 조의를 따르기는 했지만 그것을 전면 수용한 것이 아니라 고구려를 약화시키고 결정적인 작전을 통해 고구려를 굴복시키려 한 것이었다. 649년 예정되었던 대규모 원정은

12) '消耗戰'은 전투의 방법적 측면에 있어 消耗가 적용되었다는 의미로, 군사행동의 시간적 요소와 전략목표를 설명하는 측면이 부족하다.

13) Carl von Clausewitz, 유제승 역, 『戰爭論』, 책세상, 1998, pp. 62-63.

14) 영토의 점유가 목표가 아닌, 소규모 부대의 빈번한 침입으로 고구려를 피로하게 하는 것이 목표였던 군사행동을 말한다.

15) Carter Malkasin, *Toward a Better Understanding of Attrition: The Korean and Vietnam War*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 68, 2004.

太宗의 죽음으로 실현되진 않았으나, 647~648년의 전투들에 연속된 군사행동이 계획되어 있었음은 분명했다. 2년간 지속되었던 唐의 대고구려 공격은 대규모 군사작전을 위한 준비단계였던 것이다. 이렇듯太宗이 결전을 통해 승리를 성취하려 했음이 분명하기에, 唐의 예정되었던 군사행동까지를 포함하여, 그것의 방법과 시간 그리고 목표를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이 요구된다.

647년에 시작되어 649년까지 예정되었던 군사행동은 하나의 목적을 가진 단위행동이었지만, 소모행동이 이루어진 단계와 대규모 부대를 동원하려 한 공격단계로 구분된다. 기존의 연구는 소모행동 단계만을 개념정의의 범주로 삼았다. 그러나 소모를 위한 군사행동들은 649년 예정된 전투의 여건을 마련하는 단계였으므로 독립된 군사전략이 구현된 시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국면 내의 일정 단계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즉 소모를 위한 군사작전은 전술적인 수준에서 운용된 수단이였다.

唐의 요동지역 침공이 소모를 위한 것이었음은 분명했다. 그러나 소모행위가 고구려의 전쟁 의지를 꺾으려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전술적 수단이었기에 '전술적 소모전'의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결전을 준비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군사행동의 첫 단계는 '전술적 소모전을 통한 여건조성작전(이하 여건조성작전)'이라 칭하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첫 단계를 위와 같이 지칭한다면 두 번째 단계의 군사행동과 전체를 통칭할 수 있는 용어도 필요하겠지만, 두 번째 단계는 일반적인 군사행동이기 때문에 특정한 명칭부여에 큰 의미가 없을 듯하다.

이상의 검토처럼 소모행동인 '여건조성작전'과 그 다음 단계인 결전이 하나의 군사전략 범주에 속해 있었다.<sup>16)</sup> 따라서 본고에서는 두 단계를 통합하여 '여건조성 후 短期征服戰略'<sup>17)</sup>이라는 개념하에 설명하고자 한다.

16) 이처럼 지금까지 '장기소모전략, 지구·장기전략'으로 칭해지던 군사행동들은 전술적 수준이며, 이후에 상정되어 있던 대규모 군사작전의 범주를 포함시켜야 전략적 수준으로 개념 지을 수 있다.

## (2) 唐의 전략환경 인식과 군사전략 변화

앞선 장에서 唐의 군사전략이 645년의 요동전역 이후 1회성 단기전략에서 '여건조성 후 短期征服戰略'으로 수정되었음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나타난 이유는太宗의 전략환경에 대한 인식이 요동전역을 계기로 급변했기 때문이었다.

太宗이 요동전역에서 단기전략을 채택한 이유는, 당시 전략환경-군사적, 정치적 요소-이 유리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신료들은 지리적 이유에서 군사전략환경을 불리하다 판단했으며 전쟁불가론을 개진했다.

B-1. 貞觀 十八年(644) … 十一月 壬申 至洛陽 前宜州刺史鄭元璠已致仕 上以其嘗從隋煬帝伐高麗 召詣行在問之 對曰 遼東道遠 糧運艱阻 東夷善守城 攻之不可猝下 上曰 今日非隋之比 公但聽之.<sup>18)</sup>

B-2. 臣聞有國家者警諸身 … 且如長遼之左 或遇霖雨滂沱 水潦騰波 平地數尺 夫玄菟濱海 途深難測 非萬乘所宜行踐.<sup>19)</sup>

사료 B-1를 보면,太宗은 洛陽에 이르러 隋 煬帝와 같이 출병했던 鄭元璠을 불러 전쟁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鄭元璠은 작전선 신장과 고구려 산성방어체계가 견고하여 단기간에 승리를 거두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褚遂良 역시 '遼海之險'<sup>20)</sup>이라 하여 遼東의 지형이 험함을 강조했다. 또한 B-2를 살펴보면 褚遂良은 요하 유역의 雨期 시 환경과 발해만 및 서해의

17) 본고에서 征服은 유교적 이념이 반영된 '적군이나 반역도를 군대로 쳐서 바로잡아 복종 시키다'의 개념이 아닌 현대적 개념인 subjugation의 '교전당사자의 일방이 적국의 전 영토를 병력으로써 완전히 점령하고, 적국 또는 그 동맹국에 의한 저항을 완전히 분쇄하는 일'의 개념을 적용한다.

18) 『資治通鑑』卷 第197 唐紀13 貞觀 18年 11月 條.

19) 『全唐文』卷149 褚遂良 諫親征高麗疏.

20) 『資治通鑑』卷 第197 唐紀13 貞觀 18年 2月 條 “褚遂良上疏 … 一旦棄金湯之全 逾遼海之險 以天下之君 輕行遠舉 皆愚臣之所甚憂也 上不聽”.

조수간만 차를 거론하며 전쟁수행의 난점을 거론했던 것으로 보아, 당시 唐의 신료들이 전장 환경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작전선 신장에 따른 보급의 어려움과 고구려가 산성을 중심으로 방어를 한다는 것은 太宗도 익히 알고 있었다.<sup>21)</sup> 그러나 그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동일한 조건에 대해서 신료들과는 다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먼저 군사·지리적인 요소를 유리하다고 인식한 것은 즉위 초부터 계속된 전쟁의 승리에서 자신감을 얻은 데 있었다.

7세기 초 唐은 동북아시아의 강국이긴 했지만 그 지위가 공고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돌궐과의 관계에 있어서 唐은 약자의 위치였다. 太宗의 즉위년에는 돌궐의 위협이 극에 달해 渭水의 恥辱을 경험하기까지 했다.<sup>22)</sup> 그런데 薛延陀와 回紇의 배반과 突利와 詰利의 대립, 그리고 폭설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동돌궐의 지위를 唐의 침입을 우려해야 할 정도까지 끌어내렸다.<sup>23)</sup> 太宗은 동돌궐의 약화를 틈타 詰利可汗을 제압하고 건국 당시부터 굴욕적으로 이어오던 동돌궐과의 관계를 청산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吐谷渾(634)<sup>24)</sup> · 高昌(640)<sup>25)</sup> · 焉耆(644)<sup>26)</sup>를 攻破하여 서북면을 안정시켰다. 西北의 諸異民族을 제압한 太宗 ‘皇帝天可汗’이라 自稱했고 중원과 莫北의 최고 군주임을 자처하며, 이민족에 대한 ‘羈縻體制’를 구축하였

21) 요동전역 시 太宗은 韋挺을 靺鞨사에게 임명하며 군량수송이 어렵다는 점을 직접 거론했다(『舊唐書』卷77 列傳 第27 韋挺). 또한 전쟁을 준비하면서 각종 공성기계 제작을 직접 감독한 것을 볼 때 고구려의 산성방어체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22) 『舊唐書』卷2 本紀 第2 太宗 上 武德 9年 8月 條. 東突厥의 詰利可汗이 長安의 문턱인 渭水까지 내려와 太宗을 위협하고 맹약을 맺은 후에야 돌아간 사건을 말한다.

23) 『舊唐書』卷194 上 列傳 第144 上 突厥 上, “貞觀 元年 陰山已北薛延陀 回紇 拔也古等部皆相率背叛 擊走其欲殺設 頡利遣突利討之 師又敗績 輕騎奔還 頡利怒 拘之十餘日 突利由是怨望 內欲背之 其國大雪 平地數尺 羊馬皆死 人大饑 乃懼我師出乘其弊 引兵入朔州 揚言會獵 實設備焉.”

24) 『資治通鑑』卷 第194 唐紀10 貞觀 8·9年 條.

25) 『舊唐書』卷198 列傳 第148 西戎 高昌.

26) 『資治通鑑』卷 第194 唐紀10 貞觀 18年 條.

다.<sup>27)</sup> 이와 같이 연속된 군사적 성공에 더하여 실전경험이 풍부한 精兵을 보유하게 된 太宗은 전쟁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했던 것이다.

또한 唐軍이 사막과 험준한 지형에 의탁한 高昌·焉耆를 성공적으로 굴복시켰기 때문에,<sup>28)</sup> 太宗은 對高句麗戰에서도 원거리 작전선과 성곽방어체계를 극복하고 能히 승리하리라 믿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戰勝의 자신감으로 표출되었다.<sup>29)</sup>

太宗은 전략환경이 唐에게 유리하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전략을 구상했다. 고구려 정복을 위한 太宗의 전략구상은 『李衛公問對』<sup>30)</sup>에서 확인 가능하다. 李靖과의 問答을 채록해 놓은 이 책은 對高句麗戰의 전략수립을 위한 토론이 주요 내용이다. 『李衛公問對』의 첫 부분은 李靖이 돌궐의 詰利可汗을 제압할 때 사용한 전략에 관한 논의이다.<sup>31)</sup> 여기서 李靖은 자신이 正兵術을 사용하여 승리했음을 밝혔다. 또한 諸葛亮의 七縱七擒 고사를 예로

27) 김호동, 「古代遊牧國家의 構造」, 『講座中國史』2, 지식산업사, 1989, p. 298.

28) 貞觀 14년(640) 高昌王 麴文泰는 唐軍이 출병했다는 소식을 듣고 唐이 大軍을 보내면 사막과 긴 작전선으로 인해 군수보급에 실패할 것이고, 3만 명 이하를 파병할 경우 自國의 능력으로 능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또한 唐의 보급선이 신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城에 기대어 以逸待勞하면 쉽게 적을 격퇴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唐軍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진군하여 高昌을 멸망시켰고 그 지역에 西州를 설치했다(『資治通鑑』卷 第195 唐紀11 貞觀 14年 條). 또한 貞觀 18년(644)에 安西都護 郭孝恪이 焉耆를 공격할 때도 唐軍은 성의 험준함을 쉽게 극복하였다. 焉耆王은 城의 사면이 물로 쌓여 있는 천혜의 요지임을 믿고 방비를 하지 않았다. 郭孝恪은 행군속도를 두 배로 높여 야간에 성 아래에 도달했으며, 새벽을 틈타 물을 건너고, 성벽을 넘어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다(『資治通鑑』卷 第197 唐紀13 貞觀 18年 條).

29) 太宗은 장안의 耆老를 위무했을 때 戰勝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으며, 詔勅을 내려 필승의 이유 5가지를 제시하였다(『新唐書』卷220 列傳 第145 東夷 高麗, “召長安耆老勞曰 遼東故中國地 而莫離支賊殺其主 朕將自行經略之 故與父老約 子若孫從我行 我能拊循之 毋庸卹也 卽厚賜布粟”, 『資治通鑑』卷 第197 唐紀13 貞觀 18年 11月 條, “昔隋煬帝殘暴其下 高麗王仁愛其民 以思亂之軍擊安和之衆 故不能成功 今略言必勝之道有五…”).

30) 『李衛公問對』는 武經七書 중 하나로 전통적으로 중요한 병서로 인정받고 있다. 姜性文은 『李衛公問對』를 唐 太宗과 李靖의 대고구려 전쟁의 전략논의로 파악하고 있다(姜性文, 「麗隋·麗唐戰爭 原因考」, 『韓國 軍事史의 再照明』, 황금알, 2005, pp. 64-66).

31) 『李衛公問對』問對 上.

들며 단기간의 일회성 전쟁으로 고구려를 굴복시킬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지속적인 공격을 통해 고구려를 마음으로부터 굴복시킬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太宗 역시 이에 동의하여 일회성 전쟁이 아닌 지속적인 공격을 통해 고구려를 굴복시키는 전략을 수립하였다.<sup>32)</sup>

그런데 이후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급작스런 전략변경이 있었다. 정확한 경위 파악은 어렵지만, 위에서 살펴본 대로 전략환경을 유리하게 인식한 太宗의 생각이 동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즉 太宗의 낙관과 자신감이 지루한 정공법에 의한 전쟁보다는 속전속결을 추구하는 전략을 수립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러나 太宗의 수정된 전략은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취약점이 드러났고 결국 645년 요동전역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본고에서 전쟁의 자세한 경과를<sup>33)</sup> 논의하진 않겠지만, 그 진행과정에서 太宗은 고구려가 자신이 생각한 만큼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실감했으며,<sup>34)</sup> 동시에 고구려 방어체계가 한 번의 타격에 의해 무너지는 단층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도 인지하였다.<sup>35)</sup>

전략환경에 대한 인식변화는 전략의 변화로 나타났다. 太宗은 李靖과의 논의 중 제기되었던 ‘不敗之地’<sup>36)</sup>의 정공법을 일부 수용하였다. 즉 645년의 遼東戰役과는 달리 오랜 시간을 들여 작전에 임하여 고구려의 빈틈을 노려야 한다는 생각이 太宗의 의중에 생겼던 것이다.<sup>37)</sup> 이러한 太宗의 생각이

32) 姜性文, 앞의 논문, 2005, pp. 66-67.

33) 전쟁에 대한 경과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林起煥, 앞의 논문, 1994; 李昊榮, 앞의 논문, 1996;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앞의 책, 2002.

34) 『三國史記』 卷 第21 高句麗本紀 第9 寶藏王 上 5年 2月 條.

35) 고구려의 복합적 방어체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대표적이다. 余昊奎, 『高句麗城』 1(鴨綠江 中上流編), 國防軍史研究所, 1998; 『高句麗城』 2(遼河流域篇), 國防軍史研究所, 1999; 앞의 논문, 1999; 申澄植 외, 『高句麗山城과 海洋防禦體制 研究』, 백산자료원, 2000.

36) ‘不敗之地’는 적에게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고 적의 빈틈을 기다려 공격하는 것을 뜻한다.

37) 姜性文, 앞의 논문, 2005, pp. 67-69. 한편 다음 장에서 논하겠지만 645년의 遼東戰役

반영되어 1회성 공격을 통한 전쟁의 종결이 아닌, 지속적인 공격으로 고구려의 약점을 조성한 후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강력한 일격을 가하는 절충적인 전략이 구상되었던 것이다.

### 3. 전쟁의 전개 양상

#### (1) 唐의 전쟁 준비

647년 太宗은 새롭게 수립된 전략의 첫 단계로서 ‘전술적 소모전을 통한 여건조성작전’에 돌입했다. 太宗은 요동지역에 접근성이 높은 營州와 萊州를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건조성작전’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먼저 營州의 정비과정과 출병 부대의 특성을 살펴보자. 후술하겠지만 647년, 李勣은 營州都督府의 府兵을 앞세워 南蘇城 등을 공격했다(E-②). 그런데 府兵을 사용했다는 기록에 대해 인적자원의 동원 측면에서 몇 가지 의구심이 생긴다. 당시 唐은 府兵制를 운용하고 있었다. 府兵의 두 가지 임무<sup>38)</sup> 중 하나인 征防은 隋代에 軍民同籍을 실시한 이후 居民化가 시작되었고, 貞觀 10년 府兵制 개혁 이후 居民化는 더욱 엄격해졌다.<sup>39)</sup> 이는 지배력의 공고화와 丁男의 유실을 막기 위한 조치로, 折衝府와 都督府가 위치한 軍府州를 고정하고 거주민의 이주를 제한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따라서 軍府州의 府兵은 해당 府와 州에서 충원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런데 당시

때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전략이 朝議에서 결정이 되었을 때 太宗이 이를 따른 것(A-1-④)도 이러한 변화의 결과일 것이다.

38) 府兵은 각기 番上하여 수도를 방어하는 京師宿衛와 지방을 지키는 征防의 임무를 수행했다.

39) 白奇寅, 『中國軍事制度史』, 國防軍史研究所, 1998, pp. 139-140.

河北道에 속해있던 營州는 軍府州가 아니었다.<sup>4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因營州都督府兵”이라 한 것은 營州에서 병력을 차출했다는 것이고, 都督府 예하에 ‘府兵’이라 할 만한 병력이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당시 唐太宗은 營州를 비롯한 幽州 以北에 인구가 거의 없다고 말한 바 있었다.<sup>41)</sup> 그러나 이는 과장된 표현으로 貞觀 13년(639) 營州都督府에는 10屬州 9縣이 있었으며 3,281戶 15,527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다.<sup>42)</sup>

그런데 貞觀 10年(636)의 군제개혁이 단행된 이후 원칙적으로 農民編戶로서 農丁은 保·閭·族·縣·州에서 관리하도록 하였고, 대략 각 1戶에 成丁 2명꼴로 府兵을 산출하였다. 이것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sup>43)</sup>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營州의 戶數는 639년에 3,281戶였으므로 征數로 府兵이 될 수 있는 자는 약 500여 명밖에 되지 않아 下等折衝府<sup>44)</sup>도 편성이 어려웠다. 따라서 호적에 등재된 漢人으로 필요한 병력을 충당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표 1> 府兵제의 編戶別 徵集數

구분	戶數	丁數	征數	責任者
保	5戶	10丁	1명	保正
閭	25戶	50丁	4명	閭正
族	100戶	200丁	17명	族正
軍府	7,200戶	14,400丁	1,200명	折衝都尉州·縣長官

40) 金羨珉, 『出土文書を 통해 본 唐代의 府兵-西州地域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pp. 18-25.

41) 『舊唐書』卷77 列傳 第27 韋挺.

42) 許江은 『舊唐書』卷39 志 第19 地理2에 보이는 7개 주 외에 3개가 더 편성되어 10개의 屬州가 있었다고 보았다(許江, 『唐 前期의 營州都督府와 遼西經略』, 西江大學校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1996, pp. 8-12).

43) 中國軍事史編寫組, 『中國歷代軍事制度史』, 解放軍出版社, 2006, p. 272.

44) 折衝府는 3等으로 구분되었으며, 上等 1,200명, 中等 1,000명, 下等 800명이 定足數였다(中國軍事史編寫組, 앞의 책, 2006, p. 268).

더구나 河北道가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군량 충당을 위한 屯丁, 군량수송을 위해 河運과 海運을 담당하는 水手, 屯丁과 水手의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資丁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府兵까지 두는 것은 곤란했을 것이다.<sup>45)</sup> 따라서 인구가 희박했던 營州가 折衝府 설치는 아니더라도 都督府 예하 군사력 편제를 위해 白丁을 징발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營州都督府의 병력동원에 대한 의문은 都督府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검토함으로써 추정이 가능하다. 營州都督府는 靺靨州로서 요서 일대에서 거주하던 奚와 契丹을 장악하기 위해 설치되었다.<sup>46)</sup> 營州都督府는 武德 元年(618년) 隋의 柳城郡에 설치되었고, 屬州가 점차로 증가하여, 貞觀 10年(636)에는 屬州가 7개로 증가했다.<sup>47)</sup> 이는 營州都督府의 지배력 확장을 의미했다. 營州都督府의 屬州 증가는 奚와 契丹에 대한 唐의 지배력 확장으로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다.<sup>48)</sup>

또한 貞觀 19年(645)에는 乙失革部落이 來降해와 營州都督府의 지배하에 들어갔으며,<sup>49)</sup> 이듬해에는 紇主曲據部落이 來附하여<sup>50)</sup> 營州都督府의 契丹과 奚의 지배는 점차 강화되었다. 李勣이 고구려를 공격한 648년에는 契丹의 窟哥와 奚의 可度가 內附하여 각기 松漠都督과 饒樂都督의 位를 하사함

45) 金羨珉, 앞의 논문, 1994, pp. 18-25.

46) 『舊唐書』卷185 下 列傳 第135 下 良吏 下 宋慶禮, “營州都督府置在柳城 控帶奚契丹.”

47) 『舊唐書』卷39 志 第19 地理2, “營州上都督府隋柳城郡 武德元年 改爲營州總管府 領遼燕二州 領柳城一縣 七年 改爲都督府 管營遼二州 貞觀二年 又督昌州 三年 又督師·崇二州 六年 又督順州 十年 又督慎州 今督七州營州 上都督府는 隋의 柳城郡.”

48) 唐의 지배력 강화는 645년에 있었던 요동전역 중 太宗이 營州에서 契丹과 奚의 部長들과 노인들에게 차이를 두고 공물을 하사하며 窟哥를 左武衛將軍에 제수했다는 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기사 자체는 太宗이 이종족들을 위무하기 위한 활동이었으나 太宗의 거처까지 이종족들의 君長이 왔다는 사실은 이들이 당의 영향력 내에 편제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舊唐書』卷199 下 列傳 第149 下 北狄 契丹, “太宗伐高麗 至營州 會其君長及老人等 賜物各有差 授其蕃長窟哥爲左武衛將軍”).

49) 『舊唐書』卷39 志 第19 地理2, “帶州 貞觀十九年 于營州界內置 處契丹乙失革部落 隸營州都督.”

50) 『新唐書』卷43 下 志 第33 下 地理7 下, “玄州 貞觀二十年以紇主曲據部落置.”

으로써 요서지역의 이종족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공고해졌다.<sup>51)</sup> 窟哥와 可度の 來附는 唐이 고구려 공격을 위해 營州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唐은 契丹·奚를 동원하여 고구려의 변방을 공격했을 것이다. 특히 645년 요동전역의 전초에 契丹과 奚를 세워 고구려를 공격하게 한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sup>52)</sup>

太宗은 '여건조성작전' 기간에 지상기동 외에도 해상기동을 통해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唐軍이 해상기동으로 고구려를 공격한 것은 소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고구려 영내를 공략하기에는 육상기동보다는 해상기동이 여러모로 유리했기 때문이다. 해상기동은 병력 및 보급품 수송에 용이했을 뿐만 아니라 기습상륙이 가능하여 防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해상기동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山東半島의 萊州 일대가 군사기지로 사용되었다. 唐에서 고구려에 이르는 가장 안전한 항로인 老鐵山水道經由航路<sup>53)</sup>를 이용하기에 萊州가 가장 편의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唐軍의 해상

51) 『舊唐書』卷3 本紀 第3 太宗下 貞觀 22年 條, “庚子 契丹帥窟哥奚帥可度者並率其部內屬以契丹部爲松漠都督 以奚部置饒樂都督.”

『舊唐書』卷199 下 列傳 第149 下 北狄 契丹, “二十二年 窟哥等部咸請內屬 乃置松漠都督府 以窟哥爲左領軍將軍兼松漠都督府 無極縣男 賜姓李氏.”

52) 『三國史記』卷 第21 高句麗本紀 第9 寶藏王 上 3年 條, “詔諸軍及新羅百濟奚契丹 分道擊之.”

53) 金在瑾은 한반도와 중국 간 항로를 북중국항로와 남중국항로로 구분하고, 그 하위 항로로서 전자를 遼東沿岸航路, 黃海橫斷航路, 후자를 北方經由航路, 東中國海斜斷航路로 분류하였다. 그는 이 4가지 항로를 老鐵山水道經由航路, 黃海橫斷航路, 東支那海斜斷航路로 간략화하여 정리하였다. 이 중 老鐵山水道經由航路는 발해만 연안을 따라 항해하는 항로와 요동반도에서 모도군도를 연결하는 항로를 통칭하는 것이다(金在瑾, 『續韓國般船史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pp. 1-3). 한편 尹明喆도 고구려와 중국세력을 연결하는 항로를 황해북부연근해항로, 황해북부사단항로, 황해중부사단항로로 구분하여 검토한 바(尹明喆, 앞의 책, 2003, pp. 489-503) 있으나 본고에서는 항로의 명칭에 따른 혼동을 없애고자 김재근의 견해를 따라 老鐵山水道經由航路로 호칭하겠다. 약간의 경로차가 있기는 하지만 尹明喆이 말하는 황해북부연근해항로는 김재근이 말하는 老鐵山水道經由航路와 동일하다. 老鐵山航路는 漢 武帝가 고조선을 침입했을 때와 隋 文帝 및 煬帝가 고

기동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선박이 건조되었고 동시에 萊州가 군사기지로 변모하였음이 확인된다.

D-1. 二十一年(647) … 八月 … 戊戌 敕宋州刺史王波利等發江南十二州工人造大船數百艘 欲以征高麗.<sup>54)</sup>

D-2. 二十二年(648) … 七月 遣右領左右府長史強偉于劍南道伐木造船艦 大者或長百尺 其廣半之 別遣使行水道 自巫峽抵江揚 趣萊州.<sup>55)</sup>

D-3. 二十二年(648) … 太宗又命江南造大船 遣陝州刺史孫伏伽召募勇敢之士 萊州刺史李道裕運糧及器械 貯于烏胡島 將欲大舉以伐高麗.<sup>56)</sup>

사료 D-1은 647년에 太宗이 宋州刺史 王波利 등에게 강남의 12개 주에서 大船을 건설하도록 지시했던 기록이다. D-2를 살펴보면 太宗은 이듬해 7월에 右領左右府 長史 強偉에게 명하여 劍南道の 나무를 베어 함선을 건조하도록 하였다. 이때 건조된 함선들은 길이가 100장, 폭이 50여 장이 되는 大船이었다.

당시에 건조된 선박에 대한 정보는 많이 부족한 편이다. 먼저 '여건조성작전' 초기에 건조되어 고구려를 공격하는 데 사용된 선박의 수량은 '工人造大船數百艘'(D-1)이라 하여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당시 건조되어 고구려 공격에 사용된 선박들의 종류별 탑승가능 인원과 투입인원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고구려 공격에 투입된 선박의 종류는 크게 樓船과 戰艦이 있었다.<sup>57)</sup> 樓

구려를 공격할 때 사용했으며(金在瑾, 앞의 논문, 1985, pp. 71-73), 경로는 『新唐書』에 상세히 나와 있다(『新唐書』卷43 下 志 第 33 下 地理7 下, “登州東北海行 過大謝島 龜歆島 末島 烏湖島三百里 北渡烏湖海 至馬石山東之都裏鎮二百里 東傍海壖 過青泥浦 桃花浦 杏花浦 石人汪 橐駝灣 烏骨江八百里 乃南傍海壖 過烏牧島 貝江口 椒島 得新羅西北之長口鎮”).

54) 『資治通鑑』卷198 唐紀14 貞觀 21年 條.

55) 『資治通鑑』卷198 唐紀14 貞觀 22年 條.

56) 『舊唐書』卷 199 上 列傳 第149 上 東夷 高麗.

船은 배위에 樓閣을 지은 형상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며 戰艦은 樓船보다 조금 작은 군함이다.<sup>58)</sup> 양자는 모두 『太白陰經』<sup>59)</sup>에 그 형태가 설명되어 있고, 후대의 그림이기는 하나 『武經總要』에 형태가 묘사되어 있다.<sup>60)</sup> 두 종류의 배는 모두 帆檣船이기에 풍력 및 인력으로 항해가 가능했다. 기타 蒙衝, 走舸, 遊艇, 海鵠 등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檣船으로 장거리 항해가 불가능했다. 따라서 고구려를 공격하는 데는 樓船과 戰艦이 주종을 이루었을 것이다.

양 선박의 탑승가능 인원은 추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sup>61)</sup> 『新唐書』에 따르면 645년 張亮의 부대는 4만 명이 5백 척의 戰艦에 分乘했었다. 산술적으로 1척당 80명이 승선한 셈이다.<sup>62)</sup> 즉 당시 樓船과 戰艦이 일정한 비율을 이루어 함대를 구성했을 것이므로, 두 선박의 평균 승선인원을 80~90명 내외로 보아도 큰 문제는 없을 듯하다.

함대의 규모를 살펴보자. 牛進達은 선박건조가 시작되기 전인 7월에 고구려를 공격했으므로 1만 명이 이전에 갖추어진 120척 내외의 樓船을 이용하여 고구려를 공격했을 것이다.<sup>63)</sup> 그런데 薛萬徹은 戰艦을 추가적으로 이용했음이 확인된다.<sup>64)</sup> 즉, 647년 王波利가 건조한 軍船은 戰艦이 주종이었

57) 사료 E-①, F-① 참조.

58) 양자는 樓閣의 층수 차이로 대별되는 것으로 보인다. 樓船은 3층, 戰艦은 2층의 樓閣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樓閣의 높이는 탑승인원의 차이로 나타났겠지만 매우 큰 차이는 아니었을 것이다.

59) 『太白陰經』水戰具 第40.

60) 『太白陰經』은 759년 李筌이 저술하였으며, 『武經總要』는 1044년에 曾公亮·丁度가 완성하였다. 저술시기가 다른 두 책에 동일한 내용이 전하는 것은 그만큼 선박의 발전이 더디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7세기에도 이와 같은 선박이 사용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61) 선박의 탑승가능 인원과 건조된 수량은 추정치에 불과하므로 시론적인 내용으로 참고하기 바란다.

62) 『新唐書』卷220 列傳 第145 東夷 高麗, “乃以張亮爲平壤道行軍大總管 常何左難當副之 冉仁德劉英行張文幹龐孝泰程名振爲總管 帥江吳京洛募兵凡四萬 吳艘五百 泛海趨平壤.”

63) 사료 E-① 참조.

을 것이다. 薛萬徹은 牛進達이 사용한 선박에 王波利가 건조한 것들을 통합하여 운용했을 것이고, 때문에 앞선 공격에 비해 보다 많은 병력을 투입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위와 동일한 산술논리에 의해 계산할 경우 330~375척 정도의 군함이 필요했다.

3백 척을 상회하는 軍船들은 巫峽으로부터 江州와 揚州를 거쳐 萊州에 이르도록 하였다. D-3를 살펴보면, 강남에서도 배를 건조하도록 했으며, 萊州刺史 李道裕에게 군량과 器械를 烏胡島에 비축하도록 지시했다. 烏胡島는 지금의 山東省 蓬萊市の 동북방에 위치한 萊州의 인근으로 老鐵山水道經由航路의 중앙에 위치한 섬이었다.<sup>65)</sup>

太宗은 이곳에 전쟁을 위한 鎭을 설치했다. 王波利와 強偉가 건조한 함선들도 萊州나 烏胡鎭으로 집결하였을 것이다. 대형 함선의 집결과 군수물자의 집적은 많은 기반시설을 필요로 한다. 군함 정박을 위한 항구와 군수물자를 저장할 시설물 및 이를 건설·감독·관리·유지하는 조직이 요구된다. 그런 만큼 萊州와 烏胡鎭를 집중적으로 정비했을 것이다.

이처럼太宗은 새로운 군사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나치게 많은 자원이 군사작전에 투입되어 배를 건조한 劍南道에서는 관료들이 負役に 반발하여 반란을 일으켰고,太宗은 2만 명의 병사를 파견하여 제압하였다. 또한 백성들이 田宅과 子女를 팔아도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으며 穀價 상승의 여파가 다른 지역까지 미쳤다고 한다.<sup>66)</sup> 부유하다고 평가되던 劍南道에서 반란이 발생하고 경제적 타격이 심대했을 정도로 조선사업은 대규모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여건조성작전’의 투입병력은 적었지

64) 사료 F-① 참조.

65) 『資治通鑑』卷199 唐紀15 貞觀 22年 4月 條, “烏胡鎭將古神感”의 注 “烏胡鎭當置於海中烏胡島 自登州東北海行 過大謝島龜嶺島而後至烏湖島.”

66) 『資治通鑑』卷199 唐紀15 貞觀 22年 8月 條, “強偉等發民造船 役及山獠 雅·邛·眉三州獠反 壬寅 遣茂州都督張士貴 右衛將軍梁建方發隴右 峽中兵二萬餘人以擊之 蜀人苦造船之役 或乞輸直雇潭州人造船 上許之 州縣督迫嚴急 民至賣田宅 鬻子女不能供 穀價踴貴 劍外騷然.”

만, 營州와 萊州에 대한 정비과정은 唐이 투입한 국력이 심대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 (2) '여건조성작전'에 대한 고구려의 대응

太宗은 647년 2월 朝議에서 새로운 전략이 결정되자 바로 다음 달부터 고구려에 대한 군사행동을 시작했다.

E. ①三月 以左武衛大將軍牛進達爲靑丘道行軍大總管 右武衛將軍李海岸副之 發兵萬餘人 乘樓船 自萊州泛海而入 ②又以太子詹事李世勣爲遼東道行軍大總管 右武衛將軍孫貳郎等副之 將兵三千人 因營州都督府兵 自新城道入 兩軍皆選習水善戰者 配之, … 李世勣軍既度遼 歷南蘇等數城 皆背城拒戰 世勣擊破之 焚其羅郭而還 ③牛進達李海岸入高麗境 凡百餘戰 無不捷 攻石城 拔之 進至積利城下 高麗兵萬餘人出戰 海岸擊破之 斬首二千級.<sup>67)</sup>

E는 唐이 첫 군사행동으로 蘇子河 유역에 위치한 고구려의 城들을 공격한 내용이다.<sup>68)</sup>太宗은 李勣을 遼東道行軍大總管으로, 孫貳郎을 부총관으로 삼아 營州都督府의 군사를 앞세워 南蘇城 등을 공격했으나 함락시키지 못하고 성곽에 불을 지르고 돌아왔다(E-②). '수 개'의 성을 공격했다는 구절에서 하나의 성이 단일한 공격목표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 일정 면적 이상의 광역지역이 목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牛進達을 靑丘道行軍大總管으로, 李海岸을 부총관으로 삼아 萊州에서 바다를 건너 石城과<sup>69)</sup> 積利城을<sup>70)</sup> 공격하여 石城을 함락시키고 積利城

67) 『資治通鑑』卷 第198 唐紀14 貞觀 21年 條. 같은 내용이 『新唐書』에 있다(『新唐書』卷 220 列傳 第145 東夷 高麗).

68) 南蘇城과 木底城은 蘇子河 유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비정되고 있다(余昊奎, 『3세기 후반~4세기 전반 고구려의 교통로와 지방통치 조직-남도와 북도를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91, 1995).

의 방어군 2천 명의 목을 베었다(E-①, ③). 647년 7월에 있었던 두 번째 공격의 목표지역은 요하 하구일대로 李勣이 공격한 곳과 중복되지 않고 새로운 지역이 전술적 소모전의 목표가 되었다. 이후 648년에도 唐의 군사활동은 꾸준히 계속되었다.

F. ①七年 春正月 … 帝詔右武衛大將軍薛萬徹爲靑丘道行軍大總管 右衛將軍裴行方副之 將兵三萬餘人及樓船戰艦 自萊州泛海來擊 … ②夏四月 烏胡鎮將古神感將兵浮海來擊 遇我步騎五千 戰於易山 破之 其夜 我軍萬餘人襲神感船 神感伏發 乃敗 … ③九月 太宗遣將軍薛萬徹等來伐 渡海入鴨渌 至泊灼城南四十里 止營 泊灼城主所夫孫帥步騎萬餘 拒之 萬徹遣右衛將軍裴行方領步卒及諸軍乘之 我兵潰 行方等進兵圍之 泊灼城因山設險 阻鴨渌水以爲固 攻之不拔 我將高文率烏骨安地諸城兵三萬餘人來援 分置兩陣 萬徹分軍以當之 我軍敗潰.<sup>71)</sup>

F-②는 烏胡鎮將<sup>72)</sup> 古神感이 易山에서<sup>73)</sup> 고구려 군사 5천 명을 이기고, 고구려군의 야습을 복병으로 격퇴했다는 내용이다. F-①, ③에 따르면太宗은 648년 정월에 右武衛大將軍 薛萬徹을 靑丘道行軍大總管으로, 裴行方을 부총관으로 삼아 고구려를 공격하도록 하였고, 薛萬徹은 9월에 압록강의 泊灼城과 그 일대를 공격하였다. 이 전투에서 泊灼城主 所夫孫이 지휘하는 1만의 步騎와 烏骨城 및 安地城에서 지원 온 高文의 부대가 唐軍에게 패하였다. 이처럼 唐은 648년에 추위로 군사작전이 제한되는 겨울을 제외하고

69) 지금의 요령성 蓋縣 동북 석성산에 위치했던 것으로 생각된다(韓國精神文化研究院, 『譯註 三國史記』 3, 1997, p. 564).

70) 석성의 인근으로 현재의 요하 하구 부근으로 추정된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앞의 책, 1997, p.564).

71) 『三國史記』卷 第22 高句麗本紀 第10 寶藏王 下 7年. F-①, ③과 비슷한 내용이 『新唐書』에서 보인다(『新唐書』卷220 列傳 第145 東夷 高麗).

72) 『新唐書』에는 部將으로 표기되어 있다.

73) 『新唐書』에는 曷山으로 표기되어 있다.

3차례나 고구려를 공격했다.

그런데 唐軍의 군사행동을 살펴보면 대상지역을 한정하여 작전을 펼친 것을 알 수 있다. 唐의 臣僚들은 太宗에게 “則人心自離 鴨綠之北 可不戰而取矣”라고 간언했고(A-1-④), 唐軍은 蘇子河 유역 및 遼河 河口·요동반도·압록강 河口를 공격했다. 즉, 압록강 以北을 목표로 삼았던 것이다.

또한 공격의 양상에서 일정한 방향성이 관찰된다. 사료에 따르면 李勣이 647년 5월에 蘇子河 유역을, 牛進達은 7월에 遼河 河口를 공격했다. 이듬해인 4월에는 古神感이 요동반도 西端을, 7월에 薛萬徹이 압록강 하구를 공격했다. 즉 공격이 蘇子河 유역-遼河 河口-요동반도-압록강 河口로 북에서 남으로 향하며, 동일한 지역이 공격 목표로 2회 이상 선정되지 않았다.

이처럼 唐 太宗은 새로운 전략에 맞추어 내부를 정비하고, 정연하게 수립된 군사전략을 전개했다. 새로운 군사전략은 唐에게 3가지 이점을 제공하였다. 첫 번째는 소규모 부대를 운용함으로써 부대유지에 들어가는 전비와 인적자원의 소모가 줄어들었다. 이는 내치에 투자되는 자금의 증가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생산활동 참여 인력 증가를 통해 국력상승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두 번째는 군수지원 측면에도 많은 이점이 있었다. 소규모 병력을 동원하기 때문에 보급물자 수송이 용이하며, 동시에 단기작전으로 누차에 걸친 군수지원이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육상기동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수륙양면의 기동로를<sup>74)</sup> 이 용함으로써 고구려군이 방어해야 할 지역을 확장시켰다는 것이다. 방어지역의 확장은 고구려의 효율적인 대응을 제한하였다. 방어라는 군사작전의 형태는 많은 경우에 있어 작전의 주도권을 攻者에게 넘긴 상태에서 이루어진

74)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육로를 통해 기동한 부대를 육군으로, 배를 이용해 기동한 부대를 水軍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까지 水軍이라고 분류된 부대의 경우 이동로는 해상이었으나 上陸 후 작전을 수행한 것은 결국 육상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해상기동을 한 부대도 육상부대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동 경로와 수단을 지니고 병종을 구분한다는 관점보다는 기동수단에 의한 분류가 더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다. 적의 목표 지역을 예측하여 방어수단을 배치하거나, 혹은 공격이 확인된 후 방어수단을 이동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唐軍처럼 광역의 전선에 대한 무작위 공격을 실시한다면 防者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바꿔 말하면 방어의 밀도와 효율성이 떨어지고,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이다. 또한 방어지역의 확장은 고구려에게 있어 소모를 강요받는 지역이 확대된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즉 ‘堅壁清野’에 의한 소모의 규모가 늘게 되고 자연스럽게 국력의 약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唐의 ‘여건조성작전’에 대한 고구려의 대응을 체제정비 및 군사전략을 포함한 정책적인 측면과 군사력 운용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당시 고구려의 정치 상황은 연개소문을 중심으로 권력이 한층 집중되고 있었다. 그는 요동전역을 계기로 대막리지에 올랐고, 전쟁의 승리 이후 귀족연립체제를 통한 국정운영에서 탈피하여 권력을 독점적으로 장악하였다. 또한 자신의 근친을 중립직에 기용하여 권력기반을 확충하였다. 연개소문의 권력장악 결과 국내계와 평양계 귀족의 갈등이 점차 잦아들었을 것이다. 또한 지방의 유력 성주들도 연개소문에게 굴복하여 그는 지방의 행정 체계 및 군사력을 보다 강력하게 장악했을 것이다.<sup>75)</sup>

요동전역 종결 후 고구려는 피해복구에 국가적 노력을 집중했을 것이다. 전후복구사업은 연개소문의 권력장악과 정책결정과정의 단일화를 통해 더욱 빠르게 진척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고구려가 내정에 몰두하던 시기 唐의 ‘여건조성작전’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고구려는 唐의 공격을 막기 위해 지방의 방어력을 강화하고 지휘체계를 조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료 A-2(648)를 보면 연개소문이 唐軍의 계속된 공격을 막기 위해 城柵을 증설했다는 내용이 있다. 즉 연개소문은 唐의 ‘여건조성작전’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성곽방어체계를 강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주목되는 것이 千里長城의 완공이다. 천리장성은 榮留王 14년(631)에 착공하여 16년

75) 李文基, 「高句麗 滅亡期 政治運營의 變化와 滅亡의 內因」, 『韓國古代史研究』 50, 2008, pp. 76-79.

만인 647년 완공하였다.<sup>76)</sup>

그런데 천리장성 축조를 시작함에 있어 연개소문이 정치적 연륜의 일천함으로 인해 큰 역할을 하지 못했고, 642년 축성책임자가 된 것도 정치적 견제에 의한 것이기에 장성축조에 연개소문의 역할이 크지 않았다는 견해가 있다.<sup>77)</sup> 이러한 견해의 타당성은 높지만 연개소문의 권력이 강화된 645년 이후의 장성축조 사업에는 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을 것이다. 거대한 국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고 권력자의 역할이 미미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천리장성의 완공시기를 647년으로 파악할 때,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상당히 크다. 당시 고구려는 요동전역에서 입은 피해를 복구하고 민심을 안정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던 시기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전쟁으로 중단되었던 대규모 토목공사를 재개하여<sup>78)</sup> 완공시켰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절박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sup>79)</sup> 축성을 재개한 점이나, 그 완공시기와 연관시켜 볼 때, 요동전역 이후의 천리장성 축성은 그 목적이 '여건조성작전' 차단에 있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천리장성 외에도 각종 성곽의 增·修築이 이루어졌던 사실이 확인된다(A-2).

또한 諸大城을 중심으로 하는 방어네트워크가 재조직되거나 諸大城의 통

76) 『三國史記』卷 第20 高句麗本紀 第8 榮留王 14年 條, “王動衆築長城 東北自扶餘城 東南至海 千有餘里 凡一十六年畢功.” 그런데 천리장성의 완공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여호규는 완공시점을 646년으로 보고 있으며(余昊奎, 『高句麗 千里長城의 經路와 築城背景』, 『國史館論叢』 91, 2000, p. 158), 신형식은 천리장성의 축조 목적이 唐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장왕 초에는 완공된 것으로 파악하였다(申濼植, 『高句麗史』, 2003,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 313). 그러나 필자는 工期를 만으로 헤아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에 천리장성의 완공시기를 647년으로 보고자 한다.

77) 余昊奎, 앞의 논문, 2000, p. 176.

78) 축조의 재개시점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연개소문이 唐의 공격계획을 입수한 시점이나 첫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된 시점에서 공사가 재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79) 물론 공사가 재개되던 당시 천리장성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요동전역에서 파괴된 다른 성곽들을 보수하는 와중에 장성까지 완공시켰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체력이 강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盧泰敦은 고구려가 唐의 '장기소모전'에 대항하기 위해 방어작전구역을 설정하고 인근 지역에서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 광역의 군사구역을 형성했다고 파악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중심이 되는 성이 일정 권역 내의 성들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발휘했다고 보았던 것이다.<sup>80)</sup> 그러나 647년 이전에도 각 성들 사이에 지원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sup>81)</sup> 요동전역 당시 실제로 기능했음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 다만 唐의 '여건조성작전'을 계기로 중심성의 통제력이 강화되고 지원관계가 보다 밀접해졌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고구려의 축성과 방어체계의 정비가 '여건조성작전'에 대한 대책이 되지 못했다. 기본적으로 고구려의 방어작전이 城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였고, 唐의 공격에 대한 대비도 기존의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唐軍이 구사한 전략은 고구려 성곽방어체계의 강점을 고려하여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따라서 고구려의 대응책은 그 방향이 잘못 설정되었던 것이다. 또한 A-2에서 보듯 무리한 축성은 백성들의 삶을 피폐화시켜 唐의 전술적 소모전의 효과를 증대시켰다.

한편 고구려의 군사력 운용에 대한 검토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고구려는 '여건조성작전'에 대응하기 위해 가진 바 모든 역량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긴 했지만 '堅壁淸野'를 적용하는 등의 일관된 군사전략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고구려는 군사력 운용 면에 있어 새롭게 변경된 唐의 군사행동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47년의 전투들을 검토해보면 牛進達과의 전투에서는 '堅壁淸野'가 일관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石城은 백여 번의 공격 끝에 함락되었으므로 성을 중심으로 한 전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積利城에서는 고구려군이 출진

80) 盧泰敦, 앞의 책, 1999, pp. 256-257.

81) 李文基, 『7세기 高句麗의 軍事編制와 運用』, 『高句麗研究』 27, 2007, pp. 175-178.

하여 野地에서 野戰을 치렀다(E-③). 또한 南蘇城 등 여러 성들이 '성을 등지고 막아 싸웠다'는(E-②) 구절을 미루어 볼 때 성벽을 이용한 전투보다는 野戰을 실시하고 성은 후방 기지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648년에 있었던 古神感과의 전투에서 역시 성을 이용한 방어보다는 古神感軍이 상륙한 후 野戰을 치렀고, 이후 전함의 정박지에 대한 夜襲을 가했다. 薛萬徹의 공격에 대해서는 '堅壁淸野'와 동시에 野戰이 이루어졌다. 薛萬徹이 박작성 40리 밖에 營을 설치하자 고구려 사람들이 모두 邑居를 버리고 갔다는 구절은 '淸野'를 의미한다. 또한 성을 포위 공격했다는 기록에서 '堅壁'의 실시가 확인된다. 그러나 泊灼城 전투에서 '堅壁淸野'만이 구사된 것은 아니었다. 城主 所夫孫은 병사 1만으로 野戰에서 薛萬徹을 막으려 했지만 실패하고, 성에 의탁해서 방어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淸野'는 의도적으로 실시되었지만 '堅壁'은 전투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이상 5차례의 전투에서 고구려군이 운용된 사례를 분석해 보면 일관된 형태의 대응을 발견하기 어렵다. 645년의 요동전역에서는 성을 중심으로 하는 방어전술과 후방에서 파견된 부대의 구원작전으로 요약되는 통일된 군사전략이 구사되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의 비일관성을 고구려의 전쟁지도능력 붕괴로 평가할 수는 없다. 상술했듯이 연개소문이 건재했으며, 그 권력이 강화되고 있었다.<sup>82)</sup> 또한 고구려는 이후에 있었던 전쟁에서도 충분한 수의 병력을 동원하며 전쟁을 수행했던 것이다. 비록 고구려의 대응이 일관된 전략개념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의 적극성을 감안한다면 전쟁지도능력이 건재했음은 분명했다. 위에서 검토했듯이 각 성에 주둔하고 있던 고구려군의 주둔군은 이탈 없이 방어를 실시했다. 또한 공격받는 성을 지원하기 위한 구원군이 편성되어 파견된 사실도 확인된다. 그러나 전쟁지도능력의 건재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는 唐이 전개한 전술적 소모전을 일관적인 군사전략을

바탕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임기응변적인 대처를 실시했다.

唐의 공격에 대하여 고구려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원인은 '여건조성작전'의 특성상 고구려가 공격지역을 미리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堅壁淸野' 전략은 '淸野'의 실시를 위해서 공격받는 지역을 예측하고 미리 대처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다. 그러나 해상 및 육상의 다양한 기동로를 이용하여 산발적인 지역에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645년의 요동전역에서처럼 '淸野'의 방법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없었다. 야지에서 野戰이 많이 이루어진 이유도 '淸野'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 외부의 인민과 산업기반의 보호를 위해서 邀擊을 시도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건조성작전'이 고구려의 국가기반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고구려는 일관적이지는 않으나 방어체계가 유기적으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적인 대처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는 唐의 '여건조성작전'을 저지할 수 없었다. 이는 고구려가 647년과 648년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전투에서 패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고구려가 전투를 모두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여건조성작전'을 성공적으로 저지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애초부터 太宗의 목표는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 영내에서 전투행위를 성립시켜 전술적 소모를 강요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즉 전투의 승패와 무관하게 무력충돌이 있었던 것만으로도 戰場이 되었던 지역의 생산량은 저하될 수밖에 없고, 동시에 군사행동에서 오는 인적·물적자원의 소모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전술적 소모의 피해는 매우 극명하게 나타났다. 사료 A-1-②에서 보이듯 고구려는 遼東戰役으로 대량의 양곡을 탈취당했고, 이듬해에는 가뭄으로 인해 식량이 부족한 상태였다. 또한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요하 중상류 및 하구일대는 전쟁의 여파로 인해 곡물수확량이 감소하여 648년에는 양곡이 부족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압록강 이북지역은 전쟁과 가뭄, 2년간의 소모로 인해 기아에 시달리고 동시에 경제기반이 매우 피해를 겪어 649년경 고구려의 전쟁지속능력은 현저하게 저하되었을 것이다.<sup>83)</sup> 또한 사료 A-2에

82) 李文基, 앞의 논문, 2008.

서 太宗이 “戶亡耗 田歲不收… 下饑臥死溝壑 不勝數矣”라 표현한 것을 보아도 전쟁의 여파가 어떠했는지는 쉽게 알 수 있다.

#### 4. 맺 음 말

본고는 647년부터 2년간 지속되었던 고구려와 唐의 전쟁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했다. 2장에서는 唐 군사전략을 세밀히 검토하여 太宗의 의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647년부터 시작된 당의 군사행동이 전술적인 소모전과 일회성 정복전략이 결합된 형태임을 밝히고 그것을 ‘여건조성 후 短期 征服戰略’이라 칭하였다. 또한 645년의 요동전역을 전후한 시기 太宗이 가지고 있던 전략환경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1회성 단기전략에서 전략의 개념과 형태가 수정된 원인을 확인하였다.

3장은 크게 두 가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여건조성작전’을 위한 唐의 준비과정이었다. 太宗은 營州의 이민족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였고, 이들을 이용하여 고구려를 공격했다. 또한 해상기동으로 군대를 파견하기 위해 萊州에 항만과 鎭을 설치하였고, 3백 척 이상의 軍船을 건조하는 등 많은 국력을 투입했다.

두 번째는 ‘여건조성작전’의 양국의 대결을 분석했다. 唐은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偏師를 투입하여 蘇子河 유역을 시작으로 압록강 이북지역을 목표로 한정하고 방향성 있게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연개소문은 천리장성을 포함하여 성책을 증설하고, 방어체계를 정비함으로써 唐軍의 공격을 차단하고자 했다. 그러나 唐의 전략이 고구려의 성곽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키기 위

83) 唐이 애초에 ‘여건조성작전’을 시작하면서 전쟁의 목표로 삼은 것이 고구려가 耕作을 하지 못하도록 함에 있었다. 따라서 唐은 공격 대상 지역에서 耕作이 진행되도록 방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戰場으로 선정된 지역의 耕作이 중지되었다면 고구려의 식량 총생산이 감소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해 수립되었기 때문에 연개소문의 대응은 큰 효용이 없었다.

군사력 운용의 측면에 있어 고구려는 野戰 및 堅壁清野를 사용하여 대응하였으나 일관된 모습은 아니었다. 이는 唐의 군사전략이 가진 기습성과 고구려의 堅壁清野가 기능 발휘를 위한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는 약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상에서 647년~648년간의 고구려와 唐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부족한 점이 많기는 하지만 이상의 검토는 고구려와 唐 사이의 전쟁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시각을 제공하는 데 보탬이 되리라 생각된다. 또한 唐 高宗 즉위 이후 양국의 전쟁을 검토하는 데 그 배경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료의 부족으로 인해 고구려의 대응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추후 사료가 발견된다면 이러한 점을 보강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9. 4. 16, 심사수정일 : 2009. 6. 19, 게재확정일 : 2009. 8. 12)

주제어 : 전술적 소모전, 소모전략, 여건조성작전, 정복전략, 야전, 천리장성, 고구려, 당, 전략환경, 소모전

&lt;ABSTRACT&gt;

## A Review on the of *Goguryeo* · *Tang*, China War in the Second Half of 640

Na, Dong-wook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Tang*'s military operations and *Goguryeo*'s responses in the period of 647~648.

In the literature so far, the Taizong's new strategy at this period has been termed by 'long-term strategy' or 'long-term attrition strategy'. However, by examining the term 'attrition', this paper consequently argues that it is an inadequate one to explain the *Tang*'s military strategy. Moreover, the scope of the term is further divided into the two stages by taking account of the full-scale operation scheduled in 648. The first stage is 'the shaping operation through attrition', while no specific term is necessary for the second stage for its conventional nature of the operation. Also, for the military operations encompassing the entire period of 647~648, this paper forwards the term of 'conquest strategy after the shaping operation' to describe its nature in entirety.

The change in military strategy can be attributed to the Taizong's recognition of the changes in strategic environment after the failure in the Liadong campaign as well as difficulty of at-once-conquest operation against *Goguryeo*. In response, he changed his military strategy, by launching small-scaled operations in 647-648.

*Tang* strengthened the functional power of the Command Area of

Yingzhou for 'the shaping operation', and mobilized Kitan and Xi. Warships and vessels were built, and placed in Laizhou for naval operation. Given the maintenance process of Yingzhou and Laizhou, it can be deduced that *Tang* invested heavily in the 'the shaping operation'.

Taizong's 'the shaping operation' targeted the north of the Amnok river by attacking, the mid-river of Shaozi, the river mouth the Liao, the Liadodong Peninsula, and the river mouth of the Amnok, in order. Yon Kaesomun responded by fortifying fortresses including the Great Wall of *Goguryeo*, and reorganizing the defense system. However, such Yon Kaesomun's response could not prove effective against the *Tang*'s offensives, as it specifically targeted the neutralization of the fortress defense system of *Goguryeo*. Hence, although *Goguryeo*'s defence capability remained intact, she improvised her strategy by combining the engagement and traditional 'defense fortress and field evacuation' strategy rather than implementing consistent military one. Inconsistent defence strategy was caused by 'field evacuation's nature inadequate to *Tang*'s offence strategy. In other words, 'field evacuation' requires that the offence by the adversary must be known prior to launching the operation, allowing sufficient time for preparation. However, the *Tang*'s operations were largely a surprise, forcing *Goguryeo* to respond by improvising its defence strategy.

Key Words : tactical attrition, strategy of attrition, shaping operation, subjugation strategy, engagement, *Goguryeo*, *Tang*, strategical circumstance, attrition, the Great Wall of *Goguryeo*